검사원 수첩(Ⅱ)

한국어선협회 목포지부
주임검사원 유 호 길

- 땅끝 마을의 눈물 -

'95년 늦가을 어느날 저녁.

전남 해남군 송지면 땅끝마을 토말장(土末莊), 이 여관 어느 방에선 강원도에서 온 선주와 목포지부의 K검사원이 숨가쁜 통화를 하고 있었다.

10여분 통화한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았다.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었단 말이요!"

"글쎄 말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늘 아침 일곱시쯤 땅끝 마을을 출항했습니다. 한시간 정도 항해 하다보니 다른 배보다 제 배가 조금 뒤쳐집디다. 그래 제가 앞서기 위해 가바나를 힘껏 땡기니까 다른 배 앞으로 쑥 나오더라구요. 그렇게 한시간 정도를 갔는데 갑자기 기관실에서 끽끽거리는 소리가 들리며 배가 급정거 하더군요.

앞만 보고 키를 잡던 저는 몸이 앞으로 쏠려 가슴을 다쳤습니다. 급히 기관실로 가보니 벌써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솟더라구요.

그래서 취사용으로 준비한 청수 두 바께쓰 정도를 기관실에 퍼부었죠. 그러나 순식간에 화염이 연료탱크와 선체에 옮겨 붙어 그 뒤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다행히 같이 가던 배가 급히 옆으로 와 그 배로 옮겨 탄 후 저는 그저 멀건히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럼 어제 진수한 신조선이 불에 타서 완전히 침몰했다는 말이요?"

"그렇습니다. 불은 약 두시간 정도 잘도 탑디다. 검은 연기를 보고 부근 해경정이 달려왔고 저는 조사를 끝내고 방금 이 여관에 왔죠.

검사원님, 어찌 이런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지은 배인데 이런 허망한 꼴을 당하느냐고 짐승우는 소리로 흐느꼈다.

전화 저쪽끝의 K검사원도 망연자실, 그저 할 말이 없었고 겨우 한 말은 이러했다.

"김선주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사람도 죽고 사는데 마음 단단히 먹고 힘내세요."

강원도 동해시 묵호동 채낚기 어선 선주 김씨(47세).

그의 말대로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 소싯적부터 남의 배만 전전했다.

그의 평생 소원은 어엿한 자기 배를 갖는 것이었다. 집 한 칸 장만못하고 못 먹고 안 입어서 번 돈과, 처가와 동기간들에게 손 벌려 지은 4.5톤급 FRP어선.

주기관은 240마력, D2366T형 해상용 신품 터보엔진으로서 건조비는 약 5천만원 정도 소요되었다.

어제 진수날, 그는 얼마나 기뻤던가. 약 40여일 동안 그

는 거의 조선소에서 살았다. 어느 한 구석 못 하나 나무 한조각 그의 손길이 안 간데가 없는 그런 배였다. K검사원 입회하에 한시간 정도 시행된 시운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진수에 맞추어 내려온 그의 아내와 토말장에서 장래 계획을 얘기하며 밤 늦은 줄도 몰랐다.

한 밤중, 아내가 말없이 밖으로 나가 김씨도 가만히 뒤따라 나가보니, 아내는 달빛에 출렁이는 그 배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찍고 있더란다.

그리고 이튿날, 동시에 건조된 동일 규모의 어선 두 척과 함께 묵호항을 향하여 출항했고, 출항 두 시간만인 9시쯤 완도부근 해역에서 이와같은 어이없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다음날 오후 4시경, 관할 해양경찰서.

선주겸 선장인 김씨가 업무상 선박 실화(失火)등 협의로 입건된 본 해난사고와 관련, K검사원은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제출증거서류는 검사일일보고서, 관련도면, 소화설비에 대한 관련 규정 등.

해난의 원인이 혹시 건조과정에서의 잘못이 아니었나 하는 당연한 조사였다.

밤늦게 끝난 조사에 K검사원의 진술은 이렇게 끝맺음했다.

"담당 검사원으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모든 해난에 대해 검사원이 일차적인 책임의 당사자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수천척의 어선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후 그 선주에겐 약간의 별금형이 있었고, 기관 제작사에선 원인규명이 안된 상태이지만 어민 보호차원에서 동일 기종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리고 해당 조선소에서는 재료비만으로 받고 동일 규모의 어선을 제작해주었다.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K검사원, 그는 무엇을 했는가. 사고 어선을 건조 중, 조선소와 철공소 관계자에게 했던 수많은 말들은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땅끝마을에 홀린 선주의 눈물에 대해 무엇으로 답할 수 있는가.

두 얼굴의 야누스인가. 아니면 상대의 색(色)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는 음흉한 카멜레온인가…….

- 女人과 검사원 -

"봇씨요, 검사님, 우리집 남정네가 20년동안 꽁댕이 배나 옆치기배 했다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아요. 모도 항꾼에 배질한 동네 사람덜이 있으니 물어봇씨요.

그런데 머시가 검사가 안된다고 그러요. 검사원님이 시키면 시킨대로 할 팅께 검사나 해 줏씨요.

그동안 매달아 놨던 배도 검사받고 우리 배만도 못한 배도 검사받은 걸 다 아요.

검사가 돼야 보상이 나온다 하니 검사원님은 그저 우리배 검사나 해 줏씨요"

'93년 1월 어느날,

전남 신안군 임자면의 어느 갯마을 구멍가게 안.

연탄난로를 중심으로 몇 사람이 모여있고, 마침 이곳에 순회 출장 검사 나온 K검사원을 향하여 50대의 한 여인이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다.

"이보세요, 아주머니. 다시 말하지만 그 배는 선적증서상의 배와는 틀린 배이고 어업허가도 취소가 되어 개조발주허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해선망 어선들이 보상대상으로 정리되어가는 시점에서 서류상이나 실제 선박에 하자가 있을 시는 비록 안전도에 문제가 없다해도 검사를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선, 어업허가를 부활해서 선체 개조에 대한 발주허가를 받아오세요."

결국 전형적인 갯마을 그

여인은, 백태가 낀 입으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관계있는 사람들을 저주했고 K검사원은 그런 여인을 멀건히 보고 있어야 했다.

해선망 어선의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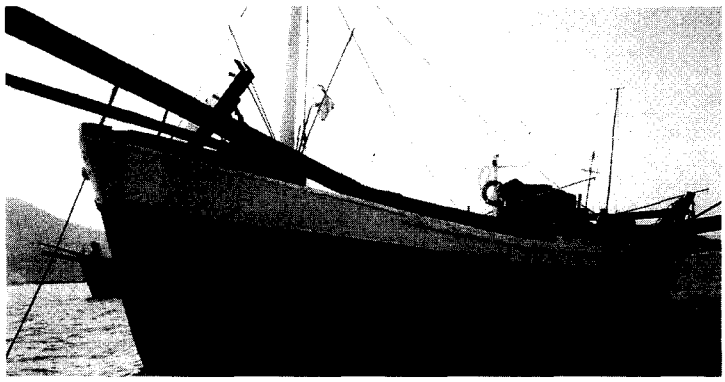
바이킹의 뱃머리처럼 선수·선미가 날카롭게 올라간 「꽁댕이배」와, 선수·선미가 아예 몽퉁한 「옆치기배」를 폐선하는 조건으로 척당 1~2억원 정도 보상해 준다는 소문에 조용하던 이 갯마을은 갑자기 들끓기 시작했다.

수산업법상 정치성 구획어업과 연안안강망어업 중 해선망 어선으로 분류되는, 아니 그보다 멍텅구리배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새우(주로 젓갈용)를 잡는 15~30톤급의 무동력 목선들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으로 정부에서 매입, 보상 후 폐선키로 한 것이다.

인권의 사각지대, 범죄자의 은신처 등으로 매스컴의 단골 메뉴로, 태풍 셀마호에 백여 명이 사망 실종되므로써 해난사고 다발어선으로, 세망(細網)을 이용한 자원 남획형어업으로 규정, 정부의 감척대상어선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의 말대로 20여년동안 이런 배를 운영해 왔음에도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여인은 누구인가.

그녀의 말대로 - 우리집 남정네 - 는 전형적인 해선망 어선의 선주겸 선장이였다.



상갑판에 그물을 끌어올리는 물레와 이것을 돌리는 3~5인의 어부들이 수개월동안 해상생활을 하는 멍텅구리배 중 옆치기 배

평소 근면 성실함을 바탕으로 돈을 벌게 되자 기존의 낡은 배를 처분하고 조금 규모가 크고 튼튼한 배를 사게 된다.

선가(船價)를 지불하고 배를 인수하고, 아는 사람을 시켜 선적증서를 이전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어업허가이전을 해태(懈怠)하였던 것이다.

해당기관에서는 어업허가이전을 수차례에 걸쳐 독촉하였고, 그러는 사이 이번 보상전(前) 시행된 어업허가 일제정비기간에는 이 여인의 배가 결국 어업허가가 취소된 「무허가 멍텅구리 배」로 된 것이다.

그야말로 무지의 소치였다.

그녀가 「다 아는」대로 그즈음에는 포구에 계선해 놓았던 다 낡은 배도 어선검사를 받기 위해 대대적인 수리를 하고 (어느 경우 수리비가 보상액보다 많았음), 어업허가와 실제 어선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검사를 받기 위해 온갖 술수가 동원되는, 그야말로 어선검사는 곧 보상이라는 생각에 사생결단, 검사를 요구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였다.

이 여인도 진작부터 담당 K검사원에게 어선검사를 집요하게 요구하고, 관계 요로에 허가권 부활을 진정하였다. 그러나 사안이 예민한 만큼 이런일이 불가능해지자 관계인을 고소하는 바람에, 보상주체나 선주들에겐 말도 조심해야 하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이다.

결국 한푼의 보상도 타지 못하게 된 이 여인은, 나중들은 이야기지만 이 마을을 도망치듯 떠났다고 했다.

멍텅구리배가 천직임을 알고 보상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평범한 이 여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그들의 배를 폐선(소각)하므

로써 폐선조차 못한 배를 전설처럼 남겨두고 정든 고향마져 등져야 했다.

인생으로서 한 고비인 그 여인과 그 여인의 - 남정네 -

멍텅구리배가 삶 그 자체였던 이들 부부에게 관행어업을 인정치 않은 추상같은 멍텅구리배 보상은 결국 이들을 도회지의 낭인(浪人)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 나를 좀 도와주시요 -

가거도(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 일명 : 소흑산도)의 출장은 신영호를 타고 가기로 했다. 새마을호가 대흑산도에서 격일제로 새벽 7시에 출항하니 여객선의 이용은 부득이 대흑산에서 1박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가거도의 여객선은 뭍과의 연락이 아니고, 멀고도 먼 섬 대흑산도와의 연락일 뿐이다.

20톤급 목선 신영호, 가거도 주민들의 생필품 운반을 위해 정부에서 지어 준 선령 10년정도의 낡은 어선이었다.

목포 출항 새벽 6시,

장농과 이불보따리, 소주상자, 김치동이 등을 가득 실고 그 틈새 틈새로 사람이 옹이처럼 막혀 있다.

그러나 바다는 결코 편안한 뱃길을 제공하지 않았다.

우이도 근방부터 몰아친 세찬 바람은 신영호를 낙엽처럼 흔들었다. 그야말로 망망대해 일엽편주, K검사원은 출장가방위로 노란 위액을 흘리건만 「옹이처럼 박혀있는」 그 사람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바다의 날(刀)에 순응한다.

그래, 섬. 섬사람들은 이렇게 살고있지.

열시간 가까이 부대끼고 나니 둥근 바가지를 엎어놓은 듯한 가거도가 나타난다.

가거도(可居島) ——.

중국에서 표류해 온 高氏가 사람이 살기(居)가 가(可)하다고 가거도라 했다던가. 靑馬의 詩 「울릉도」를 인용하면 가거도는 이러했다.

먼 심해선(深海線)밖의
한 점 섬,
금수(錦繡)로 굽이쳐 내리던
장백(長白)의 멧부리 방울
뛰어,
애달픈 국토의 막내
너의 호젓한 모습이 되었으리니,
창망(蒼茫)한 물굽이에
금시에 지워질 듯
근심스레 떠 있기에
지나 새나 물으로 물으로만
향하는 그리운 마음에
쉴새없이 출렁이는 풍랑따라
밀리어 오는 듯도 하건만
멀리 조국의 사직이
어지러운 소식 들려 올 적마다
어린 마음 미칠 수 없음이
아아, 이렇게도 간절함이여!
먼 심해선 밖의 한 점 섬,
(가거도)로 갈거나

그 한 점 섬, 가거도.

방문을 열면 바로 낭떨어지 저쪽, 끝없는 수평선만 보이는 언덕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너와집, 그 중의 한 집에 0.5톤급 목선의 선주인 高氏 영감님이 손주와 함께 살고 있었다.

여든을 바라보는 백발에, 아들과 며느리는 3년 전에 바다에 나가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한 점 혈육인 손주는 목포에 방을 한 칸 얻어 소년가장으로 국민학교에 다니는데, 마침 여름방학이라 할아버지와 같이 지낸다고 했다.

"젊은 양반, 난 이제 힘이 붙여 어장질도 못해요. 그저 낚시꾼이 오면 섬주위 갯바위에 태워다 주고 몇 푼 받는게 고작이요. 그런데 그것도 배라고 낚시어선으로 검사를 받고 감찰을 내야된다 하니 어쩌겠소. 늙은이 하나 살리는 셈치고 우리 손주 국민학교 마칠 때까지만 거둘 수 있도록 낚시어선으로 검사를 좀 해주시요."

말하자면 유어어선에 필요한 최대승선인원 조정을 위한 임시검사 신청이었다.

경운기(일명 : 딸딸이)가 부착된 0.5톤급 목선에 거주 설비가 전혀 없으므로 2명이상은 불가능 하다고 하자 그 영감님은 손주와 함께 내가 묵고 있는 여인숙을 내내 떠나지 않았다. 구명동의는 이미 5개나 구비해 놓았으니 5명으로 최대승선인원수를 늘려 달라는 집요한 요구였다.

"영감님, 제가 5명으로 늘려 들인다고 유어어선으로 허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승객을 안전하게 승하선 시킬 수 있는 선착장과 선단편성, 각종 장비 구입, 보험을 든 다음 관할 군수에게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난 어찌 살란 말이요. 돈없고 몸도 늙어 큰 배는 장만할 수 없고, 저 배가 그저 우리 손주 거둘 밑천인데 난 그럼 뭘 해먹고 살란 말이요. 젊은 양반, 좀 도와주시요. 정 못해주겠다면 그저 나를 좀 내버려 두시요"

- 나를 좀 도와주시오 -

누가 이 영감님에게 이런 말이 나오도록 했는가. K검사원인가. 해당 항포구의 출입항 관계자인가. 여인숙에서 괴로운 이틀밤을 지내고 또다시 신영호에 몸을 실었다.

떠나올 때 그 영감님은 허허로운 눈길로 손주와 함께 후박나무 그늘에서 내내 손을 흔들어 주었고 K검사원은 이내 바쁜 일상에 가거도의 기억은 묻혀 버렸다.

그러나 가끔 떠오르는 그 영감님의 잦아드는 목소리.

- 정 못해주겠다면 그저 나를 좀 도와주시요 -

법(法)은, 심해선(深海線) 밖의 한 점 섬, 가거도의 高氏 영감님께 너무도 정확하게 미치고 있음이었다.

해[redacted]위해

■ 항해시와 목적지에서는

변병, 비닐용기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맙시다.

■ 낚시터 등에서는

버리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 되가져가서 처리합시다.